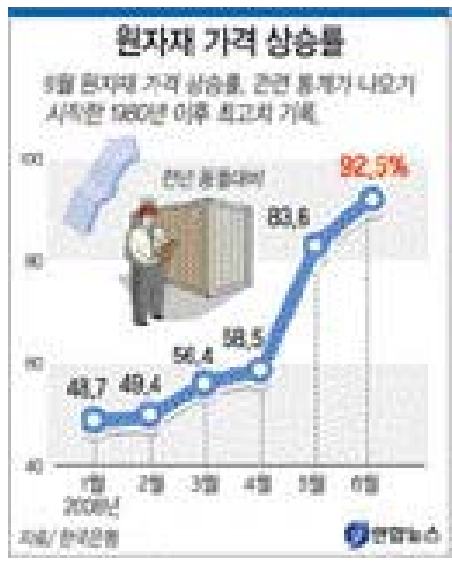


1년새 두배 ... 수입 원자재값 초고속 상승

6월 상승률 작년비 93% ... 1980년 이후 최고 수입물가 지수도 49% ↑ ... 10년만에 최대치



지난달 수입 원자재의 가격의 상승률이 거의 10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6월중 수출입 물가 동향'에 따르면 수입물가 총지수는 작년 같은 달에 비해 49.0% 올라 지난 98년 3월(49.0%) 이후 10년 3개월만에 최고의 상승폭을 보였다.

특히 원자재는 92.5%나 뛰어 관련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198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률은 올들어 1월 48.7%, 2월 49.4%, 3월 56.4%, 4월 58.5%, 5월 83.6% 등으로

계속 뛰었다.

또 중간재가격은 31.3%, 자본재는 16.4%, 소비재는 19.2%의 상승률을 보였다. 전월비 기준으로는 상승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냈다.

수입물가 총지수는 전월보다 2.7% 상승해 5월의 10.7%에 비해 낮아졌다. 원자재는 17.0%에서 6.1%로, 중간재는 7.5%에서 0.7%로 각각 둔화됐다. 자본재는 3.5%에서 -1.5%로, 소비재는 4.8%에서 -0.3%로 각각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병두 한은 물가통계팀 과장은 "원유가격 상승세가 둔화됐고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면서 수입물가의 전월비 상승폭이 다소 낮아졌다"고 말했다.

폭폭별 전월비 상승률을 보면 원자재로는 철광석이 81.3%, 무연탄이 7.2%, 천연연산칼슘이 6.7%의 비율로 각각 올랐으나 밀은 -12.5%, 냉장어류는 -5.1%, 과일인 -5.4% 등의 하락세를 각각 나타냈다. 중간재로는 역화석 19.7%, 나프타 9.7%, 프로필렌 17.1%, 헝강 12.9%의 상승률을 보였는데 비해 연피는 -25.9%, 주석은 -8.3%, 동은 -2.3% 등의 하락세였다.

소비재로는 중형승용차가 5.8%, 휴대용 저장장치가 8.8%, 스포츠신발이 2.2%, 디지털카메라가 1.5% 각각 내렸다. 한편, 지난 6월의 수출물가지수는 작년 같은 달에 비해 25.2% 올랐고 전월보다는 1.1% 상승했다. /연합뉴스

은행 '문여는 시간' 오전 8시30분 검토

영업시간 1시간씩 앞당겨 ... 노조는 반발

은행들이 영업시간을 현행 오전 9시30분~오후 4시30분에서 개점, 폐점시각을 모두 1시간씩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5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들은 지난 10일 열린 제 11차 공동 임단협에서 고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영업점 운영시간을 1시간씩 당기는 것을 포함해 영업·근무시간을 조정하는 방안을 함께 연구하는 안을 냈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일반 공공기관이나 회사의 근무 개시 시각이 대개 오전 9시인데 은행점포의 문을 여는 시간은 30분이 늦어서 불편하다는 고객들의 불만이 많다"고 전했다.

은행으로서도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이후 증권사와 경쟁을 하려면 개점시각도 오전 8시30분으로 맞추거나 여름철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는 자체 서버타임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은행들은 공동 연구반을 만들어 영업시간을 조정할 경우 미칠 수 있는 파장이나 전산 시스템 수정, 지원부서 업무 조정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 여부 대해서도 질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금융노조에서는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지금도 초과 근무가 만연한 상황에서 근무시간을 앞당긴다고 퇴근시간이 빨라지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은행권 노사는 영업·근무시간 조정을 통해 늦게까지 일하면서 시간의 수당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과도한 초과 근무 문화를 바로잡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무역적자 더 커졌다

6월 4억3천만달러 ... 반기 누적적자 61억달러

고유가 ... 대중국 적자 확대

6월의 무역적자 규모가 잠정치보다 1억4천900만 달러 늘어난 4억3천300만 달러로 집계됐다.

관세청은 지난달 수출액이 신고 취하 등으로 잠정치(374억3천300만 달러)보다 감소한 373억2천300만 달러, 수입은 잠정치보다 3천900만 달러 늘어난 377억5천600만 달러를 기록, 무역적자가 4억3천300만 달러로 최종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11년만에 기록한 반기 무역적자 규모는 61억7천100만 달러로 집계됐다.

관세청은 "6월 무역수지는 미국과 중국, 중남미 지역의 흑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상승으로 대(對)중국 적자가 작년 동기대비 34억 달러 늘어난 것이 주원인"이라고 설명했다.

6월 원유 도입물량은 91만4천400t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4% 줄었으나



유가가 상승하면서 도입금액은 82억4천800만 달러로, 70.5%나 급증했다.

원유와 광물 등을 포함한 전체 원자재 수입규모도 235억2천900만 달러로, 작년 6월보다 45.0%나 늘어났다. 다만 만석적 대일 무역적자는 6월 25억5천300만 달러로, 두 달째 전월에 비해 감소했다. /연합뉴스



'비캄스 씬머 페스티벌'

광주신세계 백화점이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15~20일 '비캄스 씬머 페스티벌'을 열고 있다. 바닐라 B, 르삼, 비지트인뉴욕, 플라스크 아일랜드 등 브랜드에서는 구매고객의 응모권을 추첨, 매장에 진열된 비치웨어를 증정하는 행사도 전개한다. (광주신세계 제공)

美 신용 위기 ... 코스피 연중 최저

외국인 27일째 순매도 이어가

대형 금융기관의 부실 규모가 갈수록 커지는 미국의 신용위기 여파로 국내 증시가 연중 최저치로 추락했다.

15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49.29포인트(3.16%) 내린 1,509.33으로 장을 마감해 연중 최저치를 경신했다. 종전 최저치는 지난 9일 기록한 1,519.38이었다.

코스닥지수는 전날보다 18.10포인트(3.34%) 내린 523.02에 마감했다.

이날 증시 급락을 주도한 것은 27일째 '팔자' 행진을 이어가며 2천377억여원의치를 주식을 순매도한 외국인 투자자들이었다.

외국인은 순매도를 시작한 지난달 9일부터 15일까지 27일간 유가증권시장에서 7조5천366억원을 팔아치우면서 사상 최장 연속 순매도 일수 기록을 경신했다. /연합뉴스

현대차 내달 車값 올린다

원자재가 급등 재료비 부담 늘어 ... 승용차 1.9% ↑

현대차가 8월 1일부터 국내 완성차 판매 가격을 평균 1.9% 인상한다. 이에따라 기아차를 비롯 GM대우·르노삼성·쌍용차 등도 차값을 올릴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는 원자재가 급등으로 재료비 부담이 크게 늘어 8월 1일부터 국내 판매가는 평균 1.9%, 해외 판매가는 평균 2.0% 인상한다고 15일 밝혔다.

현대차는 자동차 주재료인 철강가격이 연초 대비 60%나 급등했고 주물제품, 타이어, 자재 및 부품 운송비 등도 20% 안팎으로 인상되면서 상당한 원가 상승요인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가격을 올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하반기 자동차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가격을 인상하는 것이 시장을 더욱 위축시킬 우려가 있지만 차값 인상 없는 경영효율 개선만으로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대차는 승용차 국내 판매가는 평균 1.9% 인상하지만, 생계형 차량인 포터 및 중대형 상용차에 대해서는 경유값 급등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고려해 인상폭을 평균 1%대로 설정했다.

인상 가격은 8월1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7월31일까지 계약한 고객들은 인상 전 가격을 적용 받는다. /연합뉴스

연결납세제도 2010년 도입

모·자회사 하나의 과세 단위로 법인세 납부

'소득통산형' 기본 ... 100% 자회사 대상 추진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삼아 법인세를 납부하는 연결납세제도가 2010년부터 시행된다.

연결납세이론에 충실한 '소득통산형' 제도를 기본틀로 채택하며 연결자회사의 범위는 100% 자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1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결납세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연결납세는 경제적으로 결합된 모·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대상으로 해 각 법인의 소득과 결손금을 합산해 법인세를 납부하는 제도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공청회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입장이어서 한국공인회계사회의 발표안은 현실화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공인회계사회는 연결법인의 경제적 동일성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소득통산형'을 기본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소득통산형은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법인으로 봐 연결소득을 산출한 후 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연결납세이론에 충실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연결자회사의 범위는 실질적으로 경제적 동일체로 볼 수 있는 100% 자회사를 대상으로 한다. 유리스주조합이나 스탁유선이 있는 경우 지분 비율을 판정할

때 5% 이내에서 예외를 인정해준다.

연결납세제도는 2010년부터 시행이 확정됐지만 개별기업은 각자 상황에 따라 개별납세제도와 연결납세제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한번 한 방식을 채택하면 최소 5년간 동일한 방식을 따라야 한다.

연결소득금액은 연결법인 간 내부거래소득을 제거하고 연결에 따른 세무조정을 진행한 후 수정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이를 합쳐 계산한다.

연결과세표준은 연결소득금액에서 연결이월결손금, 비과세 소득, 소득공제액을 차감해 연결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연결법인세액은 연결과세표준에 법인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산출한다. 연결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 의무는 연결모법인이 지며, 자법인은 연대 납세의무가 있다. /연합뉴스

금융권 대출경쟁 억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중소대출도 관리 강화

금융당국 합동 점검회의

금융당국은 은행 등 금융회사들의 외형 경쟁이 경기 하강 때 금융산업의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출 확대를 억제하기로 했다.

또 부실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과 중소기업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5일 금융시장 위험 요인에 대한 합동 점검회의를 갖고 금융회사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외형 확대 경쟁을 막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대출을 직접 규제하기보다는 현행 금융회사 경영실태평가

도를 상한 능력 심사의 적절성과 대출 건전성 등에 초점을 맞추도록 개편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대출 경쟁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비용이 많이 드는 은행채와 양도성 예금증서(CD) 등을 발행해 조달한 자금으로 대출을 늘리는 것은 수익성과 재무 건전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하고 무분별한 시장성 수신 확대도 억제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고유가와 원자재 가격 급등, 부동산경기 침체, 물가 및 금리 상승으로 중소기업대출과 PF 대출, 가계대출의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들 대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업 체 명	모 집 분 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미감일	연락처
영풍문고	영풍문고 광주점 정규직 여사원	고졸/경력무관	1600~1800	07/17	062-364-0210
한빛경찰전문학원	경리/관리사원	초대졸/경력무관	1200~1400	07/18	062-262-3553
㈜성우	토목설계 경력직	초대졸/경력1년	회사내규	07/20	062-513-9093
㈜빛고울미래	노스페이스매장 판매직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20	062-223-5200
㈜컴스쿨	광주/전남정규직 초등학교 특기성 교사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22	062-367-1150
㈜켄텍	해외프로젝트 및 전기기술자/CAD설계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22	061-323-3801
보람그룹	광주지점 총무	초대졸/경력무관	1400~1600	07/22	02-555-7942
㈜H&T	[주5일/정규직]서부지사 SK텔레콤 114상담원	고졸/경력무관	2400~2600	07/24	062-350-6333
㈜금화모터스	자동차 하체판금 정비사 신입사원	고졸/경력무관	1000~1200	07/24	062-672-2744
㈜동해테크	컨설턴트, 시스템, 네트워크 경력직	초대졸/경력5년	2800~3000	07/25	062-371-9100
DJ OUTDOOR (동일물산)	오프라인 매장판매, 재고관리, 소품물 촬영보조 및 CS	초대졸/경력무관	1200~1400	07/25	010-4609-1001
삼익특수인쇄	스티커, 카드, 특대지인 경력직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7/25	062-224-8375
함신엔지니어링	3d모델링, 기술지원 및 프레스금형설계(경력)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25	062-611-5911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인사담당자가 말하는 '면접시 고득점자'

조리있게 답하는 '똑순이형' 꼬마

인사담당자들은 면접관의 질문에 조리있게 대답하는 '똑순이형' 지원자를 가장 높게 평가한다는 설문결과가 나왔다.

15일 온라인 취업사이트 사람인에 따르면 상반기 채용을 진행한 인사담당자 246명을 대상으로 '가장 높게 평가하는 지원자 유형'에 대해 설문한 결과 '면접관의 질문 요점을 잘 파악해 어떤 질문이든 조리있게 대답하는 똑순이형'(25.2%)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이어 '면접관의 불쾌한 말투나 곤란한 질문에도 웃음을 잃지 않는 스마일형'(21.1%), '지원하는 기업의 사업방향, 비전 등을 철저히 분석해온 침두침미형'(14.2%) 등의 순이었다. /연합뉴스